

## 3

## 6, 7세기에도 계속되는 백제로 부터의 도래

### 백제로부터 왜(倭)로의 문화 기술 이전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야마토 왜(大和倭) 시대에, 선진문화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 갔을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자 엘리트 집단이 임시 혹은 교대 근무형태로 일본에 주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백제 왕족의 일부 핵심 멤버들은 항상 야마토 조정을 방문하고, 장기간 머물러 있었던것 같다. 일본서기(NII: 70-72)의 기록은 또,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야마토 왜가 공급하는 활과 말과 군대에 의존 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서기 제2권으로 옮겨가고자 하는데, 제2권은 케이타이(繼體)와 더불어 시작되는 6세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일본서기(NII: 7)는, 서기 512년에 “오시아마가 백제로 파견되어 쓰쿠시(筑紫) 땅의 말 4 필을 선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기록(NII: 9)에는, 서기 513년에 백제가 “단양니(段楊爾)라는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보내왔다고 적혀 있다. 일본서기(NII:

14)는 다시 서기 516년, 백제가 오경(五經)에 밝은 고안무(高安茂)라는 학자를 보내면서, . . . 단양니와 교대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일본서기는 또(NII: 14) “백제가 작막고 장군과 시나토와 아히타 라는 두 일본인(日本斯那阿比多, 아마토-시나 와 누아-히타 라고 번역해야 할지도 모른다)으로 하여금 고구려 사신 안정(安定) 일행을 수행하게 했으며, 이 사절단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우리 조정을 방문했다(來朝結好)”고 기록하고 있다.<sup>1)</sup>

일본서기(NII: 59-60)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높이 6장의 불상(丈六佛)을 만들고, 원문(願文)을 적어 보냈다— ‘나 [백제 성명왕, 재위 523-554년]는 높이 6장의 불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극히 큰 공덕이라고 들었다. 이제 경건하게 불상을 만듦으로써 얻은 이 공덕으로, 나는 천황[간메이, 재위 531-571년?]이 크나큰 덕을 얻고(勝善之德), 천황에 속하는(天皇所用) 모든 미야케 땅에(彌移居國) 고루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노라.’”<sup>2)</sup>

<sup>1)</sup>오오우치(大內) 집안은, 14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중엽까지 지방 군벌로서 추고쿠(中國) 서부 지방을 지배 했었는데, 이 집안은 백제 성왕(聖王, 또는 성명왕)의 셋째 아들인 임성 태자(眞聖太子)의 후손이라 한다. 임성태자는 서기 611년 수오구니(지금의 야마구치 현의 일부)로 건너 왔다고 한다. 그의 후손들은 오오우치 촌(大內村)에 정착하여, 수오지방 장관직을 독차지했다. 이 집안의 25세손인 오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 서기 1356-1400년)는 이 지방 6개 구니(國)의 군정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 대항하여 오오에이(應永)의 난(亂)으로 알려진 반란을 일으켰었다. 그의 동생 모리미(서기 1377-1431년)는 한국 및 중국과의 무역을 사실상 독점하여 큰 재산을 모았다. 이 집안은 16세기 초 오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 때 세도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슈고(守護)로서 7개 구니를 다스리고,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의 기독교 전도 사업을 지원했다. KEJ(1988: 6, 135)를 참조. 서기 1313년 오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는 큐우슈우(九州)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1313년에는 조선 조정에 보고서를 보내어, 바다로부터 한국의 해안지대를 약탈해 오던 왜구(倭寇)를 일소해 버릴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보고서에서 그는 자기가 백제 왕족의 후예라고 쓰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종실록(定宗實錄, 재위 1398 -년)은, 오오우치 요시히로가 백제의 창건자 온조왕(溫祚王)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오우치 집안은 자기들이 백제 시조 온조 고씨의 후에

일본서기(NII: 61)는 서기 546년에, “백제 사절단이. . . 돌아갔다. 그들에게 훌륭한 말 74필과 배 10척이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기 547년(NII: 62) 백제는 “전부 덕솔(前部德率)의 진모선문, 나솔(那率) 기마, 그밖의 사람들을 보내어 원군을 청하고(乞救軍), 덕솔 문휴마나 와의 교대로, 동성(東城)의 아들, 하부(下部) 언(言)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②</sup> 서기 54년(NII: 63)에는 “370명을 백제에 보내어 득이신(得爾辛)에 성을 쌓는 공사를 돕게 했다(助築城)”고 한다. 서기 550년에 긴메이(NII: 64)는 백제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나솔 마무(馬武)라는 신하가 있어. . .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보좌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국가가 무사하기를 바라신다면. . .  
마무를 우리 조정에 대사(大使)로 보내면 됩니다. . . .  
우리는 귀국 북방의 적이 포학하다는 말을 듣고,  
화살 30뿍을 보내 드리니, 이것으로 한 군데나마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기 551년(NII: 65)에 “천황은 백제왕에게 밀[보리?] 종자 1만말(一千斛)을 선물로 보냈다.”<sup>④</sup>

서기 552년(NII: 65)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은. . . 금동 석가불상 한개, 깃발과 우산 몇개, 그리고 여러 권의 불경을 보내왔다. 이와는 별도로 [불교를] 널리 받들도록 힘쓰는 공덕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보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 . . 여러 법 중에서도 이법은 한량이 없고 가이 없는 복덕과 과보(果報)를 낳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급기야는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 .’”  
긴메이(NII: 65)는 “끝까지 듣고 나더니, 뛰어오를 듯이 기뻐하면

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었으므로(百濟始祖彌祚高氏之後), 그들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무역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sup>③</sup>

서” 대신들에게 이를 받들어 모시면 어떨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소가노 오오 오미(蘇我大臣) 이나메(稻目)가 천황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서쪽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없이 이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어찌 아키프 야마토(豊秋日本)만이 믿기를 거부하겠습니까?”<sup>(4)</sup>

일본서기(NII: 68)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치노 오미(內臣, 성명미상)는 [서기 553년] 훌륭한 말 2필, 객선 2척, 활 50개, 화살 50묶음 등 선물을 들고 백제에 사절로 파견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천황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왕이 요청하신 군사(所請軍者)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또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易博士), 력박사(曆博士) 등은, 교대로 (일본 조정)에 참내하고, 물러가도록 해야 하오. 마침 지금 열거한 사람들이 교체될 해와 달이 되었으니, 사신들과 함께 새 사람들이 교체 될수 있도록 하시오. 우리는 또 복서(卜書), 달력, 여러가지 약물도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소.’”<sup>(5)</sup> 서기 553년(NII: 70), 백제왕은 긴메이에게 서한을 보내어 말했다:

“바다 건너의 나라들은 활과 말이 매우 부족합니다.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천황으로부터 받아 왔으며,  
 그것으로 강적들을 막아 냈었습니다.  
 원컨대 하늘의 자비로 많은 활과 말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서기 554년(NII: 71-72), 백제는 목협문차를. . . 쓰쿠시(筑紫)에 보내어 우치노 오미(內臣)와 의논하게 했다. . . ‘우리는 방금 귀하가 천황의 명으로, 우리에게 내려준 군사를 이끌고 쓰쿠시에 도착했다는(看送賜軍) 말을 들었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었소. 금년의 작전은 작년보다 훨씬 위험하오. 원컨대 우리에게 내려 주신 군대가, 정월달이 지나도록 지체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오.’ 그러자 우치노 오미 대답했다. . . ‘그래서 조군(助軍) 천명과 말 백필과

배 40척이 지금 보내지도록 명령 되었습니다.”<sup>⟨7⟩</sup>

같은 해 (NIII: 72)에 백제는 “하부 간솔(下部杆率) 삼귀 장군과 상부 나솔(上部那率) 모노노베노 오(物部烏)를 보내어 원군을 청했다(乞救兵). 그들은 이 기회에 전번에 교체되어 온 동성(東城)의 아들 나솔 언(那率 言) 대신 역시 동성의 아들인 막고(莫古)를, 고덕(固德) 마정안 대신 오경(五經) 박사 왕유귀를. . . 승려 도심(道深)외 6명 대신, 승려 담혜(曇慧)외 8명으로 교대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 . 그들은 역박사(易博士)인 시덕(施德) 왕도량, 력박사(曆博士)인 고덕(固德) 왕보손, 의박사인 나솔 왕유능타, 채약사(採藥師)인 시덕 번량풍과 고덕 정유타. . . 그리고 악인(樂人)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도 요청에 의해 교체된 것이다.” 일본서기(NIII: 73)는, 서기 554년에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다음과 같은 선물을 긴메이(欽明)에게 보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 . . 상품의 비단 2필, 양탄자 1매, 도끼 300개, 그리고 점령한 성의 남자 2명과 여자 5명. . .”<sup>⟨8⟩</sup>

일본서기(NII: 78)는 서기 556년에 백제 왕자 헤(위덕왕의 동생으로 후에 혜왕이 됨)가 고국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청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대단히 많은 무기와 훌륭한 말들이 선물로 주어졌을 뿐아니라, 그의 수행원들에게도 후하게 선물이 주어져서, 모두 감사의 탄성을 질렀다고 말한다.

일본서기(NII: 95-96)에 의하면, 서기 577년 오오와케(大別) 왕자가 백제에 파견되었다. 백제왕은 “돌아가는 사절 오오와케(大別) 왕자와 그 일행 편으로, 율사(律士), 선사(禪師), 비구니, 주금사(呪禁師), 조불공(造佛工), 사찰 목수(造寺工) 등 모두 6명과 함께 여러 권의 불경을 비다쓰(敏達)에게 보냈다”고 한다. 일본서기(NII: 117-118)는 또 기록하고 있다: 서기 588년에

“백제는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 .  
불사리(佛舍利)와 승려. . . 율사(律師). . .  
사찰목수(寺工). . . 주물을 만드는 기술자. . .

기와박사(瓦博士). . . 화공(畵工)등을 함께 보냈다.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가 백제 승려들에게  
 수계(受戒)하는 방법을 물었다. . .  
 그리고 비구니 쯤신(善信) 일행을. . .  
 백제 사신에게 위탁하여,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게 했다.  
 그는 아스카노 기누누이노 미야코(飛鳥衣縫造)의 선조  
 고노하의 집을 헐고, 호오코오지(法興寺)를 짓기 시작했다.  
 이곳 이름은 아스카노 마가미노하라(飛鳥真神原)였다. . . ”<sup>2 <10></sup>

일본서기가 계속해서 고구려 승려에게는 귀화(歸化)라는 말을 쓰고, 백제 승려에게는 단순히 도착했다는 뜻으로 내지(來之)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실을 보면 재미있다. 예를 들어, 서기 595년(NII: 123)에 “혜자(慧慈)라는 고구려의 승려가 일본에 「귀화」하여 황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같은 해에 혜총(慧聰)이라는 백제 승려가 도착(來之)했다. 이 두 승려는 널리 불교를 펴서 삼보(三寶)의 동량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sup><11></sup> 서기 601년(NII: 126)조에는 “관록(觀勒)이라는 백제의 승려가 도착하여(來之). . . 역본(曆本)과 천문 지리에 관한 책과 둔갑술(遁甲術)에 관한 책을 선사했다. . . . 고구려에서도 두 사람의 승려가. . . 함께 귀화했다(共來歸)”라는 기록이 있다.<sup>3 <11></sup>

<sup>2</sup>가나지(1985)에 의하면, “가족 사찰(우지데라, 氏寺)을 짓는 것은, 원래 조상의 명복을 빌고 가족의 안녕과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또 자기 집안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7세기로 접어들 무렵] 여러 씨족과 가문에서 가족 사찰을 짓는 일이 널리 성행하자, 고분(古墳)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sup>3</sup>가나지(1985)는, 소오토쿠 태자(聖德太子, 서기 574-622년)가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소개한 때(서기 545년)로 부터 그다지 오래지 않아서 태어났는데, 그는 처음에는 불교를 미신적인 가지기도(加持祈禱)의 믿음으로서, 나중에는 국교(國敎)로서 받아들였다가, 마침내는 개인적인 대각견성의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나지는 다시, 이것이 정확히 일본에서 불교가

샌섬(1931: 37-38)은 지적한다: “중국 조정에 대해 전체 일본을 대표하는 최초의 공식 사신은, [聖德太子가 파견한] 오노노 이모코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기 607년에 일본을 떠났으며. . . 그 이듬해에 수(隋)나라 사신 두사람과 함께 돌아왔다. . . 서기 608년 말, 수나라 사신들이 돌아갔는데, 역시 오노(小野)가 따라갔다. [쇼오토쿠] 태자가 선발한 여러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하기 위해 오노와 함께 여행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개척자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귀국 후 일본에서 [서기 645-650년, 大化改新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sup>

일본서기(NII: 139)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 “. . . 학생들은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헤 후쿠인(倭漢直福因), 나라노 오사(橿原) 에묘(奈羅譯語惠明), 다카무쿠노 아야비토 쿠로마로(高向漢人玄理), 이마키노 아야비토(新漢人) 오오쿠니, 학생 승려 이마키노 아야비토 히후미(또는 니치분, 新漢人日文), 미나부치노 아야비토 쇼안(南淵漢人請安), 시가노 아야비토 에온(志賀漢人慧隱), 이마키노 아야비토 고사이(新漢人廣濟) 등 모두 8명이다.”<sup>(12)</sup> 샌섬(1931: 88)은 “그 이름과 칭호로 미루어, 이들은 모두 귀화한 한국인 또는 중국인, 혹은 그들의 후손 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샌섬은 더 정확하게, “그들은 모두 도래(渡來)한 백제인 또는 그들의 후손 이었다”고 말했어야 했다.<sup>(12) (13)</sup>

서기 609년(NII: 130-140)에 “쓰쿠시의 다자이(大宰)가 여왕(스이코)에게, 도흔(道欣)과 헤미(惠彌)라는 승려를 우두머리로 하는

받아들여진 순서였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초기에는 불상이 단순히 세속적 기록을 내려 줄수 있는 외국의 신으로서 숭앙 되었으며, 불교의 교리 자체는 거의 등한시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타이카 개신(大化改新)에 관한 포고령은, 서기 645년 소가노 이루카(蘇我入鹿)가 암살된지 1년후, 고오토쿠(孝德, 재위 645-654년)에 의해서 내려졌다. 이 개혁은 토지와 인력을 황실의 권위 아래 귀속시키고, 새로운 정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불승 12명과 속인(俗人) 75명이, 히고(肥後)현의 아시기가 항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했다.”<sup>5<13></sup> 서기 612년(NII: 144)에는 “미마지(味摩之)라는 또 한사람의 백제인이 일본에 귀화했다. 그는 오(吳)나라에서 그 나라 형식의 음악과 춤을 배웠다고 말했다. . . [그리하여] 미마지에게서 이 예술을 배우도록 젊은이들이 모집되었다. 마누노 오비토 데시(眞野首弟子)와 이마키노 아야비토 세이분(新漢濟文)이 그에게서 춤을 배워 다른 사람들(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sup>6<13></sup>

서기 642년(NII: 173)에, “소가 오오미(蘇我大臣)가 백제의 고기(翽伎) 일행을 우네비에 있는 자기 집에 초대했다. 소가는 그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훌륭한 [다시 말해서 잘 조련된] 말 한 필과 봉상(棒狀)철괴 20개를 선물로 주었다.” 같은 해(NII: 175)에 “이 백제 사절단이. . . 돌아갔다. 그들에게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세 척이 주어졌다.” 같은 해(NII: 176)에

<sup>5</sup>다자이후(大(太)宰府)는 큐우슈우에 있었던 정부의 본부 관청 이름이며, 다자이라는 칭호로 언급된 관리는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NII: 298도 참조). 서기 664년, 한국의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장래의 반격을 내다보고 큐우슈우에 요새가 건조 되었는데, 이것이 내내 다자이후 자리가 되었다. 보오겐(KEJ: 2, 79)은, 다자이후의 이 특별 관청은 아마토 조정의 직접 관리를 받았는데, 이것은 “큐우슈우가 아시아 본토와 근접해 있고, 간사이(關西) 지방에 있는 일본 정치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보오겐은 또, “8세기와 9세기 동안 이 도시는 번창 했으며, ‘멀리 떨어진 수도’로 알려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다자이후는 서기 701년의 다이호 율령(大寶律令)에 의해 정규 관청으로 설치 되었으며, 이 율령은 그때까지의 외교 및 방위 책임에 추가해서 큐우슈우 지역의 책임까지 다자이후에 부여했다.

<sup>6</sup>일본서기(NII: 140)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610년에 “고구려왕은. . . 담징(曇徵)과 법정(法定)이라는 두 불승을 보냈다. 담징은 오경(五經)에 밝았다. 게다가 그는 그림을 그리는 물감과 종지와 먹을 잘 만들었다(能作彩色及紙墨). 그는 또 방아도 만들었다. 방아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이것이 처음이었다.” 서기 619년에 고구려는 “. . . 토산물로. . . 피리, 활, 투석기 등 모두 10점을 보내왔다. 그들은 또 자기 나라에서 기른 낙타도 한 마리 보냈다(NII: 146).”<sup>13</sup>



“백제의 질(質) 달솔 장복(長福)에게  
 쇼토쿠(小德)의 벼슬이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간급 객(中客) 이하 사람들에게도  
 위일급(位一級)이 모두 수여 되었으며,  
 지위에 따라 각종의 선물이 주어졌다.”<sup>14)</sup>

서기 675년(NII: 252)에 “서해(西海) 파견 대사(大使) . . . 가 백제에서 돌아왔다. 그는 사이메이(齊明)에게 전달되는 선물로 낙타 한 마리와 당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왔다.” 서기 661년(NII: 275)에 텐지(天智)는, “히라후등 전장군(前將軍)들을 파견하여. . . 백제를 돕게 했다. 그는 또 무기와 곡식도 보냈다.” 서기 662년(NII: 277)에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鬼室福信)에게, 10만개의 화살, 500근의 생사, 1,000근의 풀솜, 1,000단의 천, 1,000매의 가죽, 3만 말(斗)의 법씨를 보냈다.”<sup>15)</sup>

서기 663년, 백제가 나당(羅唐)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패망한 뒤, 백제 사람들은 잇달아 일본으로 대거 망명했다. 일본서기의 텐지조에는, 일본으로 건너 온 백제 피난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NII: 282-292): “백제의 선광왕(善光王)과 그의 가솔들은 나니와(難波, 오오사카)에 거처가 주어졌다. [서기 664년에] 수도 북쪽에 별이 떨어졌다. . . 백제에서의 관위계급을 감안하고 좌평(佐平) 복신(福信)의 공적을 생각하여, 귀실집사(鬼室集斯)에게 쇼오킨 하위직(小錦下)이 수여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 백성 400여명은 아후미 구니(近江國) 간자키군(神前郡)에 살도록 해 주고. . . 그들에게 밭이 주어졌다. . . 달솔 답본 춘초(答本春初)는 나가토 구니(長門國)에 파견되어 성을 축조토록 했다.<sup>7</sup> 달솔 억례복류(憶禮福留)와 달솔 사비복부(四比福夫)는 쓰쿠시에 파견되어,

<sup>7</sup>백제의 세 단계 관직 제도는 (각각 자색, 심홍색, 청색 의상으로 구분 되었으며) 좌평(佐平)을 최고위에 놓고, 그 밑에 열개의 “솔(率)”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이 달솔(達率)이었다 (이기백, 1984: 52). 집사(集斯)는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서기 665년] 오오노(大野)와 오요기(椽)의 두 성을 축조했다.<sup>8</sup> 백제 남녀 2천여명이 동국(東國)에 정착했다. 흑백(다시 말해서 승려와 평민)의 차별 없이(凡不擇縑素), 그들은 모두 계해년(癸亥年, 서기 663년)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관에서 지급하는 식량으로 생활했다. . . . 좌평 여자신(餘自信)과 좌평 귀실집사, 그리고 그밖에 700명이 넘는 남녀들은, [서기 669년] 아후미 구니 가마후군(蒲生郡)으로 거처를 옮겼다.”<sup>16)</sup>

일본서기(NII: 295)는 또 기록하고 있다: “[서기 671년에 백제] 좌평 여자신(餘自信)과 [法官大輔] 사택소명(沙宅紹明)에게 다이킨 하위직위(大錦下)가, [學職頭] 귀실집사에게는 쇼오킨 하위직위(小錦下)가, [병법전문가] 달솔 꼭나진수. . . [의약 전문가] 김수. . . [五經학자] 허솔모, [陰陽 전문가] 각복모에게는 각각 쇼오산 상위직위(小山上)가 주어졌다. 그리고 50명이 넘는 그밖의 달솔들에게는 모두 쇼오산 하위직위(小山下)가 주어졌다.”<sup>9</sup> <sup>17)</sup>

새로 도착한 백제 난민들은, 백제에서의 관위계급에 따라 전통적인 야마토 지배자들과 똑같은 명예나, 아니면 적어도 일본의 평민

<sup>8</sup>배튼(1986)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서기 663년 백촌강(白村江) 전투의 참패에서 676년 당군(唐軍)이 한국으로 부터 철수할 때까지의 기간은, 일본인 으로서는 매우 근심에 찬 세월이었다. . . 일본인의 불안감은 이기간 중에 취해진 극성스러운 방어 준비활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서기는, 서기 664년에 ‘쓰시마(對馬)섬, 이키(壹岐)섬, 쓰쿠시 구니(筑紫國)에 일선 방위와 봉화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쓰쿠시에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규모 저수지가 건설되었다. 그것을 수성(水城)이라고 불렀다.’. . . 일본서기는, 667년 야마토에 다카야스 성(高安城), 사누키에 야시마 성(屋島城), 쓰시마에 가네다 성(金田城)이 축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 요새의 축조와 수리에 관한 언급은 여기 저기에 701년까지 계속된다.”<sup>16)</sup>

<sup>9</sup>일본서기(NII: 352)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681년에 “삼한(三韓) 사람들(일본에 정착한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가 내려갔다:—‘전일 여러분들에게 10년간 세금을 면제토록 했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귀화 초년의 여러분을 따라온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10년간 노역(勞役)이 면제되었다.’”<sup>18)</sup>

들과 똑같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일본서기(NII: 295-296)는 “다음과 같은 짧은 노래가 즐겨 불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굴(多致播那播)은  
저마다 다른 가지에서 자라지만,  
구슬처럼 꿰 때는  
실 하나에 모두 꿰어지네.”

여기서 굴은 백제 지배자들과 야마토와 지배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백제인의 대규모 도래로 말미암아, 7세기 일본의 인명록인 신찬성씨록에 실려 있는 가문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계라고 전해져 왔다.<sup>10</sup> 모리시마(1982: 30-3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패망 후 많은 한국인들이 —정치가들, 학자들, 승려들, 예술가들이— 백제에서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 왔는데, 마치 제2차 대전 후 미국 점령군이 한 것처럼, 일본에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던 것이다.”

황족의 기원을 생각해 본다면, 오오진-야마토의 지배자들이 처음부터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sup>10</sup>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8: 471)는: “야마토 귀족 정치에 있어서의 한국 이민들의 엄청난 중요성은, 서기 815년에 편찬된 귀족들의 족보(族譜)에 나타나 있는데, 이 족보는 그 당시 중앙 귀족 1,182 가문의 3분의 1이상의 기원이 외국 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한다. 홀(1971: 46-4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본 역사의 오랜 발전에 있어서, 7세기를 귀족형 문화로 이전해 가는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7세기 동안 옛 씨족 엘리트들은, 지방적이며 호전적이었던 지난날의 성격을 벗어 던지고, 새 황실 조정을 중심으로 한 시민귀족(일본인들은 公家라고 불렀다)으로 변신했다. 이 씨족 엘리트들은 그들의 계보(9세기의 신찬 성씨록에는 약 천백개의 성씨가 수록되어 있다)를 지니고 귀족 시대로 들어갔다. 그들은 독립된 군사력과 경제력의 원천을 포기했으나, 그대신 새로운 중앙 정부와 결합하여 고도로 세련된 생활 양식을 영위 함으로써, 새로운 특권과 신분상의 보장을 확보했다. . . 역사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힘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들어난 것은 12세기 후의 일이다. . .”

이었다. 한국의 사서(서기 1145년의 삼국사기, 서기 1285년의 삼국유사)와 일본의 사서(서기 712년의 고사기, 서기 720년의 일본서기)에는, 신라와 야마토 왜의 지배자들 사이에 지속된 적대 관계에 관해 많은 기록들이 실려 있다. 반면 이와는 눈에 띄게 대조적으로, 이들 사서는 —특히 일본서기는— 백제와 야마토 지배자들 사이의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가들은 전통적으로 신라를 모든 관심의 표적이 되는 왕국으로 간주해 왔다. 그 결과 백제는 역사책에서 아주 작은 분량의 지면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며,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최소한의 주의를 끌었을 뿐이다.

코벨 부부(1984: 111)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편찬 되었을때, 당시의 일본은 고구려와 백제의 피난민으로 넘쳐나고 있었다<sup>11</sup>. . . 한국인의 후손인 일본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유리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으나, 한국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 . . 신라는 이들 피난민들의 역사적인 적(敵)이었다. 백제에서 온 학자들은, 중국 고전에 관한 지식이 율 등했었기 때문에, 두개의 사서, 특히 일본서기의 편찬을 도왔다. 그들은 신라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신라가 1세기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 기록들은 ‘왜곡’되었던 것이다.”<sup>12</sup>

<sup>11</sup>속일본기(스넬렌 역주: 185)는, 구다라노 오 엔호(百濟王遠寬, 직역하면 백제 왕족의 일원임을 의미하는 “백제왕” 엔호가 된다)가 서기 700년 히타치(常陸)의 태수로 임명 되었다고 기록하고, 또 (전계서: 211) 서기 703년에 하타노 아손 히로타리가 주 신라 대사로 임명되고, 구다라노 오 료구 (“백제왕” 료구)가 이요(伊豫)의 태수로 임명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sup>12</sup>센섬(1931)에 의하면, 나라(奈良)시대에 중국어를 읽고 쓴다는 것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배하는 특별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대륙에서 가져 온 원전을 필사하는 것은 한 관청의 책무였는데, 바로 이 관청의 “책임자가 한국출신의 저명한 학자인 키시다 요로시라는 고위 관리였고, 그는 서기 733년까지 그 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1985년 말에 있었던 한 고고학적 발굴은, 서기 403년에 백제에서 건너 온 아지키시(阿知吉師)가, 고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지키노 후히토(阿直史)의 시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지키노 후히토가 일본서기의 집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sup>13</sup> <19>

1979년, 청동판에 새겨진 한자 41자의 묘지(墓誌)가, 오오노 야스마로〔太安萬侶,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자로 추정되어 온 인물. (사카모토, 1991: 33, 참조)〕의 무덤에서 발굴되었다. 무라야마(村山七郎)와 밀러(1979)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묘지의 중국어 예서는, 중국어 문법의 소사(小辭)인 ‘이’라는 뜻의 지(之, 자동사 ‘죽다’ 후의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를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옛백제] 한국적 방법을 쓰고 있다. . . 이러한 사용법은 6세기에서 8세기 중엽까지 한국에서 사용된 초기의 한자 금석문(金石文) 표본에 의해 [비록 중국어로서는 전혀 비문법적이기는 하지만] 놀랍도록 잘 입증된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다시 논평한다: “야스마로(安萬侶)의 묘지(墓誌)에 들어 있는 이 놀라운 [옛백제] 한국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일본의 독서 대중이 얼마나 오래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를 기다려 본다는 것 자체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sup>14</sup> 사카모토(1991: 5)는 또, 속일본기(續日本紀)의 편찬자들인 스가노 쓰무라지마미치(津連管野真道)와 그밖의 사람들이, “그들 조상이 백제로 부터 이주해 왔다는 이야기와. . . 오오진(應神), 닌토쿠(仁德), 비타

<sup>13</sup>1960년대 말부터 계속된 이 발굴에서는, 서기 694-710년 기간중 후지와라 궁(藤原宮)이 서 있던 자리로 부터, 글을 써 넣은 나무 조각인 목간(木簡)이 발견된 것이다.

<sup>14</sup>左京四條四坊從四位下勳五等太朝臣安萬侶以癸亥年七月六日卒之養老七年二月五日乙巳. 진구우(神功) 62년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NII: 252)은, “이”라는 뜻의 지(之)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제본기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 . 이것을 토벌하기 위해 사치히코를 보냈다(遣 . . . 命討之).”

쓰(敏達)의 치세에 그들이 했다는 빛나는 공훈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일본서기는, 5세기 초까지 일본인이 중국 본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유일한 통로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본서기(NI: 269-27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기 426년에 “아찌노 오미(阿知使主)와 쓰가노 오미(都加使主)는, 여자 재봉사를 구하기 위해 오(吳) 나라에 파견되었다. 아찌노 오미 일행은 고구려 땅으로 건너가 그곳으로부터 오 나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막상 고구려에 도달해보니 도무지 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고구려에게 길을 아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사정했다. . . 그렇게 하여 그들은 간신히 오 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sup>15</sup> (20)

5세기 중엽, 일본에서 중국에 이르는 해로라는 것은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요동(遼東) 반도로 올라간 다음, 최단 직선거리 [뤼다(旅大)―안타이(煙臺) 지름길]를 택해 산둥 반도로 건너 가는 코스였던 것 같다. 그러나 송서(宋書)에 기록되어 있는, 왜(倭)왕 부(武)가 순제(順帝)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수 있듯이, 고구려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왜의 선박을 번번이 나포했다. 이런 이유때문에, 5세기 말경 왜의 배들은, 백제-고구려 국경선 [대략 지금의 인천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곧장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황해를 건너 산둥 반도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샤워(1937: 57-58)가 지적하고 있듯이, 서기 663년 나당(羅唐)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하고, 서기 676년 신라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된 후로는, 중국에 파견되는 일본의 외교 사절들이, 황해 대신 그 사나운 남지나 해를 건너 [현재의 상하이-제지앙 지역에] 도달하는 최남단 코스를 택하지 않을수 없었다.<sup>16</sup>

<sup>15</sup>애스턴(NI: 269n)은 지적하고 있다: “구례(吳)의 마지막 군주가 퇴위한 서기 280년은 이 사절단이 파견되기 훨씬 오래 전이었다. . . 그러나. . . 이 구례(吳)라는 호칭은 오(吳)에서 진(陳)까지, 다시 말하여 서기 229년에서 589년까지 남경(南京) 혹은 그 근처에 세워진 6개 왕국 모두에 적용되었다.”

<sup>16</sup>신당서(新唐書)는, 신라가 해로를 봉쇄하자, 일본 사절단들이 당 조정에 조공을

우리가 만약, 중국으로 가는 이 통로에서 부딪치는 엄청난 위험성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초기 문화 발달에 미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현대의 일본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클 수가 없었을 것이다.<sup>17</sup> 로버트 보오겐(KEJ: 7, 260)은 말한다: “중국으로 가는 항해는 매우 위험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미숙한 선박 조종술 때문이었다. 일본인은 흔히 계절풍이 반대 방향에서 불 때 출항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래서 더 많은 수의 노젓는 선원이 [필요했다]. . . 7세기. . . 이후에는. . . 일본 배가 더이상 [한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곧장 중국으로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원시적인 배로서는, 이와 같은 항해가 아주 힘든 일이었다. . .”

서기 607년에서 669년까지, 그리고 702년에서 838년까지의 사이에, 모두 18회의 공식 사절단(수(隋)에 파견된 견수사(遣隋使)와 당(唐)에 파견된 견당사(遣唐使))이 중국에 파견되었다. 수 조정에 최초의 공식 사절단이 파견된 것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기 607년이었으며, 이들은 그 이듬해 수 조정에서 보내는 사절단과 함께 (백제 땅을 거쳐서) 돌아왔다(NII: 136-137). 수의 사절단은, 제2차 왜(倭) 사절단 및 소오토쿠(聖德) 태자가 선발한 백제 후손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서기 608년에 떠나갔다. 이 사절단은 그 이듬해에 돌아왔다(NII: 139-140). 서기 614년 이누가미와 야타베가 수에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다음해

바치러 가기 위해 밍과 유에 현(지금의 제지양성(浙江省) Ningbo(寧波)와 사오싱(紹興) 지방)을 통해서 가지 않았으면 안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sup>17</sup>일본서기(NII: 260-261)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이메이(齊明, 재위 655-661년) 치세때, 배 두 척에 탄 사절단이 당(唐)으로 파견되었다; 서기 659년 7월 3일, “그들은 나니와(難波)의 미쯔항을 출발했다;” “8월 11일, 그들은 쓰쿠시의 오오쓰항을 떠났다;” “9월 13일, 그들은 백제의 남쪽 국경에 있는 한 섬에 도착했다;” “14일 그 두척의 배는 함께 바다로 나아갔다;” “15일 해질무렵 이하시키의 배가 역풍을 만나 남해의 한 섬에 표류했다. . . 야마토노 아야노 오사노 아타헤(東漢長直) 아리마(阿利麻)는. . . 섬 사람들의 배 한 척을 훔쳐 곽조우(括州)로 도망쳤다.” <>

백제 사절단과 함께 돌아왔다(NII: 145-146). 서기 630년에는 [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唐)에 사절단이 파견되었으며, 서기 632년에 당나라는 이 왜 사절단을 일본에 호송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다(NII: 165-166). 서기 665년에는 사신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중국으로 호송했다(NII: 284). 서기 669년 또 하나의 사절단(NII: 292)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에 파견되었다. 서기 670년에서 701년 까지는 당에 사절단이 파견되지 않았다.

서기 702년에서 837년까지 약 아홉 차례, 사절단이 당에 파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KEJ: 7, 260을 참조). 서기 607년에서 669년까지 중국 조정에 파견된 아홉 차례의 사절단 가운데, 서기 653년과 654년의 사절단만이 일본 배를 타고 갔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sup>18</sup> 서기 702년 이후에는 당에 파견된 공식 사절단이, 거의가 일본 배를 타고 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사절단이 백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들 공식 사절단은,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지식과 문물을 일본에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샌섬(1931: 90-91)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과정은 완벽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중

<sup>18</sup>일본서기(NII: 251-252)는, 서기 657년에 사절단이 다음과 같이 서한을 휴대하고 신라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귀국 사절단의 호송 아래 승려 치타쓰, 미무마야, 하시비토노 무라지, 와쿠고, 요자미노 무라지 등을 대당(大唐)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일본서기는 또, “신라가 그 같은 호송을 거부했으며, 따라서 승려 치타쓰 일행은 되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sup>19</sup>샌섬(1931: 87-89)은, 일본 공식 사절의 중국 파견이 그리 자주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얼마 안되는 접촉은 상당히 거창한 규모로 수행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8세기 초에는 배가 네 척이나 선단을 이루어 항해 하도록 했는데, 그 항해는 결코 가벼운 행사가 아니었다: “여행자들은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신라의 해안에 표류도 할수도 있었고, 또는 그 조그만 배들이, 자주 발생하는 태풍을 만나 지나해(支那海)에 삼켜질수도 있었던 것이다. . . . 남쪽 루트를 택한 사절단 치고 어느 하나 다소간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배가 한 척이상 해변으로 표류하여 난파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었다.”



국, 중국의 제도, 중국의 사상에 관한 지식을 한다리 혹은 두다리를 거쳐야만 배울 수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는 외국어라는 매체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에 도달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형식이었다”고 생각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일본은 중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으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15세기까지 중단되었다.